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이만기 | 인천문일여고 교사 · EBS 위성TV <즐거운 책읽기> 진행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보잘 것 없고 흔히 있는 것이라도 정작 꼭 쓸 데가 있어 찾으면 드물고 귀하다는 말이다. 이 말이 요즘처럼 절실하게 느껴진 적도 없다. 책을 버려놓고 후회하는 꼴이라니.

나는 대학 때부터 책을 사 모았다. 청계천 헌책방부터 인천 배다리 헌책방까지 방과후의 일과는 헌책을 사러 다니는 일이었다. 집의 한 구석을 차지해가는 책을 보면서 양주동 선생의 <면학의 서>에서 인용한 '남아수독오거서' (男兒須讀五車書)라는 말을 떠올리며 흐뭇해하곤 했다. 책을 사온 날 밤이면 거의 한권을 독파해 읽고, 다음 날이면 다시 책을 사러 가는 일이 반복됐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 책장을 놓은 방안에서는 먼지가 날리고, 냄새가 난다. 책을 사모은 지 오래고, 또 책방에도 별로 나갈 시간이 없어 책이 별로 쓰는 것 같지 않건만 방은 점점 좁아진다. 그래서 몹쓸 짓을 하기로 하고 지난 방학 때부터 계획을 세웠다. 책을 버리기로 한 것이다. 일단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봤던 사회과학 서적을 필두로 전공과 관련되지 않은 책들

을 버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반 교양서 가운데 지난 3년 간 한번도 보지 않은 책을 버렸다. 아는 헌 책방에 그냥 갖다 주기도 하고, 학교에 폐지로 버리기도 했으며, 누가 소용되는 사람이 가져가라고 잘 묶어 아파트 폐지 모으는 곳에 놔두기도 했다. 한권 한권 버릴 책을 골라내며 그 책을 살 때를 기억하면서 꽤 여러 날 동안 대충 정리했다. 그래도 책장에 다 못 들어가 누워 있는 책도 허다했다. 그리고는 다시 2차로 책을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방안이 좀 넓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는 분이 아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전화했다. 아니면 한글 이름짓는 책이 있으면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마 하고 돌아와 책장을 뒤지니 아뿔싸, 책을 버린 것이다. 아마 그 책도 '3년 간 한번도 안본 책' 기준에 걸린 모양이다. 하기가 둘째를 나온 지 5년이 지났으니... 버린 것이 너무도 후회가 됐다. 그리고 며칠 후 2002학년도에 새로 나오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자습서를 집필할 일이 있어서 자료를 찾다가 예전 교과서에 실렸던 글이라는 것을 알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뭐 기준에 있던 것이니 수월하게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집에 예전 자습서를 모아 뒀으니... 그러나 돌아와 확인하는 순간, 아, 또 버린 것이다. 언제 다시 보라 하고 마음먹고 버린 것이다. 아는 헌 책방에 연락을 하니 너무 오래돼 구할 수가 없다. 이런이런... 그 외에도 요즘은 왜 이리 버린 책을 볼 일이 많은지. 낡아서 먼지만 쌓이고 천덕꾸러기 노릇을 하던 그것들이 없으니 이렇게 아쉬울 데가. 참,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요즘은 디지털 시대다. 전자책이 나오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책이 가정으로 배달되는 시기가. 하지만 버린 것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 책이 개똥은 아니지만 경솔히 책을 버린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던지. 그것은 다시는 구할 수 없는 책들이다. 후회가 막심하다. 이젠 차라리 먼지를 먹을지언정 책을 버리진 않으리라. ■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원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 · 서정희

출판저널 · 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 · 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 - 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 - 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 - 1431 · 2 | 편집

732 - 1433 | 업무 · 정기구독문의

FAX 722 - 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 수협 · 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 - 01 - 0219 - 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 - 6

716 - 5616~9, 716 - 5621~3